

■ 주간 증시 포커스

美 금리인상·자산축소 전망
원자재 소재·금융업종 관심
IT주 상승 동력확보 주목

연초부터 꺾은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지수가 금요일에 오히려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올해 1.0% 넘는 하락세가 단 하루에 그치며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지수는 28일 1.73%(42.25포인트) 하락하며 2,400선을 겨우 지켜냈고 코스닥지수도 4일연속 하락하며 652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실적발표회에서 2분기 사상최대실적을 달성했지만 3분기 실적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부진으로 소폭 줄어들 수 있다는 자체 전망을 발표하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장비 및 IT 업종으로 하락세가 확대되었다. 연초 이후 10조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에만 1조 6,324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락폭을 확대시켰다.

지난 6월 미국 IT기업이 버블 우려로 조정을 보였지만 국내 IT 기업은 견조한 실적과 상대적인 저평가 인식이 견조한 상승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주 외국인 순매도가 강화되면서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은 견조하겠지만 외국인 매도공세가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지수(-1.73%)보다 하락폭이 컸던 업종은 증권(-4.33) 전기전자(-4.12%) 의료정밀(-3.18%) 의약품(-2.5%) 건설(-2.31%)업종이다. 하지만 지난주 외국인순매도 규모가 1조 6324억이었는데 전기전자업종이 1조 5044억으로 순매도규모에 육박하였다. 상반기 IT 업종이 실적에 기반하여 급등세를 보였지만 2분기 실적발표 이후 성장속도 둔화에 대한 논란이 거론되면서 IT섹터 전반에 차익실현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업종별 순매도규모에서 IT 업종을 제외하면 외국인의 순매도규모는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향후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고 전 업종으로 확대되며 셀코리아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국내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으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17일자 본 코너에서 필자는 코스피지수 상승세 완화와 상승걸림돌이 될만한 것으로 단기급등과 9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자산축소에 대한 시장우려감확대로 8월 조정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지난주 외국인 순매도가 강화되자 시장에서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 축소 우려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가을부터 통화정책 정상화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였다.

7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에서 가장 주목되는 시사점은 연준이 추가금리인상을 향후 인플레이션 등을 판단해 결정되지만 보유자산 축소는 다음 회의인 9월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9월에 금리동결과 자산축소가 결정되고 12월에 금리인상 및 자산축소확대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과 자산축소가 점진적이고 시장에충격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보유자산 축소 플랜의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17일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자산축소를 경험한 적이 없어 시장충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9월 FOMC회의를 전후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주 조정으로 IT섹터는 차익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조정가능성은 있었지만 실적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을 생각한다면 추가적인 낙폭이나 조정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주식시장도 전반적인 조정으로 확대되기 보다는 IT섹터의 조정 국면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소재 업종과 글로벌 금리인상 국면 진입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업종에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지난주 조정폭이 컸던 코스닥시장도 2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실적모멘텀이 부각되며 순환해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전남 농업인 생산기업 제품 잘 나간다

구례 우리밀공장 등 34개 업체서 생산 327개 품목
농협서 올 13억 어치 팔려 ... 전년 동기보다 44% ↑

전남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가공한 제품들의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생산기업의 제품의 판매가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가뭄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0일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협 유통매장에서 전남 농업인 생산기업 제품들의 판매금액이 총 13억원 상당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액 9억원 보다 무려 4억원(44.44%)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구례에 소재한 '광의면특산물사업단 우리밀가공공장' 등 34개 업체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우리밀 가공제품 등 327개 품목을 농협 유통매장을 통해 판매에 나서면서 매출상승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농업인 생산기업 제품이란 농업인이 생산한 1차 농산물을 식품이나 특산물 등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시중 판매가 어렵거나 판매가가 적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데다, 농산물 소비촉진과 가치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가공제품의 유통관로 확보와 일손부족, 고령화 등으로 경영과 마케팅 분야는 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농산물의 제조·가공식품을 통한 6차 산업 활성화도 더디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농협은 이들 생산기업에서 출시한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전국에 있는 하나로마트 등 농협유통매장에 '농업인 생산기업 우수상품 판매코너'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판매와 더불어 마케팅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정부에서도 농업인 생산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 농업인 생산기업을 6차산업 인증경영체로 지정하고, 제품개발과 경영컨설팅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전남지역에는 농업인 생산기업 업체는 총 175개로 이들 모두 6차산업 인증경영체로 지정받아 제품개발과 컨설팅 분야에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해 이어가는 중이다.



이흥목(왼쪽 첫번째)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이 지난 28일 농협목포유통센터 하나로클럽 매장 '농업인 생산기업 우수상품 판매코너'를 방문해 하반기 판매확대 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이흥목 본부장은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업부문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농촌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도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품 이용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있다"며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도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품 이용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어촌특화센터 제주도 전복업체 현장클리닉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과가 지난 27일 제주도 일대 전복종자업체를 찾아 현장 클리닉을 벌였다.

〈사진〉

30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과에 따르면 노한성 전복팀장, 박영진 해조류 팀장, 선승천·정병길 연구사 등 4명이 지난 27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라전복, 동원영어조합법인 등 2곳을 방문했다.

이들은 업체 내 양식장의 해수 분석을 (주)연안관리기술연구소에 의뢰하는 한편 전복 치패 먹이생물인 규조류가 파란(PET 재질)의 판에 잘 부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한라전복과 동원영어조합법인은 각각 수온이 섭씨 17.53도, 18.64도, 염분은 33.86psu, 32.88psu를 보였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들은 업체 내 양식장의 해수 분석을 (주)연안관리기술연구소에 의뢰하는 한편 전복 치패 먹이생물인 규조류가 파란(PET 재질)의 판에 잘 부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경남어촌특화센터 여수·고흥서 현장으로 컨설팅

한국어촌어항협회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지난달 14일과 24일 여수, 고흥, 무안 등의 수산종자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및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마쳤다.

〈사진〉

이들 업체들은 송어, 농성어, 뽕바리 등의 종자를 생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낙후된 국내 수산종자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설팅에는 사료·영양분야 전문가 전남대 교수, 질병·위생분야 김위식 전남대 교수, 환경·안전분야 조주연 박사, 생산·기술분야 김철중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업체 면담 결과 판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크고, 신제품 민간 육종가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 등 컨설턴트들은 최신 기술을 업체에 알려주고, 어류 종자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해주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들 업체들은 송어, 농성어, 뽕바리 등의 종자를 생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낙후된 국내 수산종자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미래농업 이끌

청년 창업농장 10곳 육성

전남도가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 창업농장'을 육성한다.

전남도는 청년 예비농에게 시설비용과 임차비를 지원해 창업농의 초기 투자자본 부담과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굴한 2017년 전남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시·군비 포함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개소를 육성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영농 경력이 없는 만 18~39세 청년 예비농이다. 상근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농지(임차 포함)가 없어야 한다.

대상자별로 2500만원 한도에서 활용 가능한 하우스, 축사, 배설물처리 등의 농업시설물 개·보수 비용 및 시설 1년 임차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청년 예비농은 거주읍·면·동에 다음달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시·군이 심의를 거쳐 도에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사업 대상자를 8월 말까지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시설을 활용해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영농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해 5년간 영농교육을 이수하거나 선도농가와 멘토링제에 참여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급 매”

광양, ㄷ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7억 8천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 H,010-3605-5000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나주, ㄷ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